

기 도 ----- 인 도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 다 같 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예배마침 -----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가정의 추석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목사 : 홍순용 목사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0길 46 | 전화 : 02-2244-7265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예배초대 ----- 가족 중에서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같 이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

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 가족 중에서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 요 7:37-39(신약 157p) ----- 인도자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나눔 -----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가정 -----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은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고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주신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2000년 전 유대인의 초막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축복과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혼과 마음의 목마름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로 가야합니다(37절).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또한 자신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인으로서 그 내면에 목마른 심령과 공허한 마음 등 더욱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심령과 마음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해결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때 문입니다.

2.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38절)

37절에 “마신다”는 표현은 38절에서 “믿는다”는 표현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령과 마음이 메말라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 촉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생기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의 물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3. 예수님의 마시게 하시는 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39절).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제아무리 개인과 가정에 메마름과 갈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 메마름과 갈증과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마음과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에 풍성한 기쁨이 더욱 넘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기록되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자 하나님하신 예수님은 메마름과 갈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해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땅이 풍성한 물을 흡수하여 오곡백과의 열매를 맺듯이 추석을 맞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혼이 늘 즐거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